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90

2025
07
08

다시 위대하게,
‘순천향발전위원회’ 출범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5. 07-08



다시 위대하게! Great again!

Editor_백승주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철학, 위대한 시작을 만든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순천향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통해 다시 한번 위대한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을 이룹니다'라는 설립 철학 아래,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법인 1호 병원, 의사가 최초로 설립한 의과대학 등 수많은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생산한 순천향은 개원 당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대한민국 VIP 병원'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일본서 귀국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을 전담 치료했던 '왕의 병원'으로 불릴 만큼 명성과 높은 신뢰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순천향이 있었고, 대한민국 거물급 인사들의 응급상황마다 순천향이 활약했다. 위대한 시작의 중심에는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혜안과 철학이 있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품격 있는 의료를 실천하며, 대한민국 의료사에 한 획을 그은 서석조 박사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평을 넓힌 진정한 의료 혁신가였다.

서교일 이사장, 위대한 부활을 이끈다

오늘날 순천향이 다시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의 중심에는,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서교일 이사장이 있다. 서교일 이사장이 강조하는 '휴메인 앙트레프레너(Humane Entrepreneur)' 정신은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선다. 이는 순천향의 설립 이념을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순천향을 다시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신을 순천향인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은 순천향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가치의 중심이 흔들리는 지금, 서교일 이사장은 온화한 품격과 높은 인품, 그리고 깊은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병원과 대학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끌어왔다. 권위가 아닌 존중으로, 지시가 아닌 본보기로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리더십은 순천향이 지향하는 '사람을 위한 병원'의 핵심가치이다. 실적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높은 도덕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은 순천향의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나침반이며, 그 정신이 이어질 때 비로소 순천향은 다시, 진정한 위대한 병원! '왕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5. 07+08 VOL. 90

발행일 2025년 7월 16일

통권 90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이번에 출범한 순천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순천향이 오직 환자위한 위대한 글로벌 병원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06

FOCUS1

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
‘순천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10

FOCUS2

순천향대 천안 새병원,
미래형 의료시대 연다



12

LOVE

‘들리는 행복’, 모두가 행복한 새 삶을 열다



14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
- 의과대학 학생에서
환자를 살리는 ‘내과 의사’로 성장

16

DOCTOR

‘성실맨 명의’ 김진국,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다
- 김진국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20

VISIT

중부권 최고 암 치료 허브로 도약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24

WITH

병원에 피어난 백합 향기,
30년의 기부 봉사
- 순천향대 구미병원 ‘백합회’ 신숙화 회장,
김량운 부회장



26

ISSUE

급성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발생 위험 1.5배 높다

28

ISSUE

- 문중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 분야 적정성 평가 ‘1등급’

30

ISSUE

광복 80주년의 따뜻한 선물



32

ISSUE

구미병원, 걸기로 하나 되다



34

KNOWLEDGE

지긋지긋한 가려움 ‘습진’ 뿌리 뽑기

36

KNOWLEDGE

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38

KNOWLEDGE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진화,
‘표식’ 없는 정밀 치료

40

KNOWLEDGE

현미경적 혈뇨,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42

EQUIPMENT

컨스탈레이션 비전 시스템

44

NEWS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순천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을 이룹니다” ...
100인 위원이 함께 만드는 ‘세상에 없는 병원’의 시작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이 2024년 6월부터 역량 있는 대내외 인사들과 함께 준비해 온 ‘순천향발전위원회’가 세 차례의 예비 모임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을 이룹니다’라는 철학 아래, ‘세상에 없는 병원’을 향한 비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비전과 실천을 약속하는 ‘순천향발전위원회’의 창 의적 의료혁신이 기대된다. 100여 명의 위원이 뜻을 모은 이 날의 다짐은 단지 병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로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순천향이 한국 의료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글·사진_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기획조정팀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이 6월 1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순천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순천향의 창립정신인 ‘인간사랑’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서울병원 재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서유성 중양의료원장, 이정재 서울병원장, 신용진 특임원장, 백무준 의과대학 학장, 탁민성 전략기획본부장, 이성진 대외협력사업단장 등 의료원 주요 보직자와 함께, 산업계 CEO, 의료계 인사, 의과대학 동문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순천향의 비전에 뜻을 모았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물들이 발전위원으로 위촉되며, 순천향의 도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순천향의 미래 비전, ‘사람을 위한 병원’ 구현 선언

이번 출범식은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을 이룹니다’라는 주제로 1부 ‘만남의 밤’, 2부 ‘도약의 밤’, 3부 ‘약속의 밤’ 등 총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단순한 형식의 출범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료철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 방안이 함께 소개된 복합형 행사로 주목 받았다.

서교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순천향은 설립 이래 한결같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철학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발전위원회는 그 철학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현옥 (주)상훈유통 회장과 남종현 (주)그래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의 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인간 존중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순천향의 미래 의료 비전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탁민성 전략기획본부장은 순천향의 철학이 담긴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이정재 서울병원장은 건배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출범의 시작이 아니라, 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약속의 밤”이라며 참석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

서울병원 마스터플랜 공개… “창의적 해법의 시대가 시작된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비전 스피치에서 “순천향은 ‘몰입의 료’라는 이름으로 한 명의 환자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진료를 실천해왔다. 이는 진료의 기술적 완성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의 의료를 의미한다”며 순천향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병원이야말로 그 철학이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는 공간이라며, “서울병원의 재도약은 곧 순천향 전체의 미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병원 마스터플랜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공공 및 필수의료 강화 ▲



미래 의료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제는 의료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와 산업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대표위원장 문양근 의장 연설... “망설임 없이 전진하자”
 이날 출범식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문양근 글로벌텍스프리(주) 의장의 연설이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응급수술로 회복한 환자 출신으로서 발전위원회 대표위원장을 맡게



이정재 서울병원장

된 감회를 밝히며, “순천향이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지금, 발전위원회의 출범과 새 서울병원 신축은 가장 필요한 시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병원의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들은 기부 약정과 실행 계획을 고민하고, 재단은 현실적인 설계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설 말미에는 “망설임 없이 전진하자”는 다짐과 함께, 위원 모두의 건강과 협력을 기원하며 마무리해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후 이성진 대외협력

사업단장이 캠페인 추진 조직에 대한 연설이 이어지며 순천향의 도전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기용 마산정안과 대표원장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없는 병원’이라는 작품 속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순천향이 만들어갈 미래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문화와 감동이 어우러진 출범의 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사회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양준모 교수와 김원경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했고, 양 교수는 뮤지컬 「The Greatest Showman」의 대표곡 <From Now On>을 열창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진심 어린 노래는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메시지로 울림을 남겼다.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조직 구성 발표를 넘어, 순천향이 지켜온 진료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마스터플랜을 향한 힘 있는 첫걸음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람을 향하는 병원’이라는 구호가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구조를 통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순천향발전위원회의 출범은 이제,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써 내려갈 여정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SCU





순천향대 천안 새병원, 미래형 의료시대 연다

1천 병상 규모의 초대형 병원 개원식 성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새로운 1천 병상 규모의 초현대식 병원 개원을 맞아 7월 7일 오후 개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본격적인 미래형 병원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 의료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_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보팀

천안의 새 의료 랜드마크, 품격 있는 개원식으로 첫걸음

7월 7일 오후,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 6층에 마련된 ‘현국홀’에서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100여 명과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렸다.

천안시립예술단 남성 5중창과 소프라노 윤나리의 축하 공연으로 개막한 행사는 기념사, 환영사, 축사, 새병원 소개 및 동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



사에는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 등 지역 정치·행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대표 의료기관의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새병원은 기존 병원과 인접한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5층, 1천 병상 규모로 건립됐으며, 연령별, 질병별, 의료공백 없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와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어, 지난 5월 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이후 빠르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날 공식 개원식을 통해 그 위용을 지역사회에 선보였다.

환자 중심 인프라 구축... 고용창출과 지역 상생도 실현

새병원은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환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진료·입원 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에는 1,039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기존 병원의 주차난을 해소했으며, 병실은 전 병동 최대 4인실로 설계되어 환자 프라이버시와 쾌적성을 높였다. 옥상정원과 다양한 휴게공간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회복에 도움을 주는 힐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새병원은 올해 들어 다양한 직군에서 약 4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더불어 병원 인근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진료와 교육, 연구를 아우르는 ‘의료 클러스터’로 성장할 기반도 마련됐다. 향후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바이오 의생명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미래를 밝히는 다짐과 비전... 환자 중심 병원으로 ‘재도약’ 선언

이문수 천안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새병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며, 갈 길 잃은 지역 의료의 롤 모델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면서, “첨단의료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품격을 갖추고 지역의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새병원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료의 새로운 심장을 세운 것”이라며,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서, 응급·필수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의 개원은 지역 의료계의 중대한 이정표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의료의 질, 환자 중심 서비스, 연구개발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이곳이 앞으로 펼쳐갈 행보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소**



‘들리는 행복’, 모두가 행복한 새 삶을 열다

인공와우 수술로 화목한 가정과 직장 되찾아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고 듣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시형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청력을 잃어가며 점차 세상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은 그의 삶에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다시 들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게 했다. 박시형 환자는 이제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글.전진용 사진.한남기



24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년퇴직으로 마친 박시형 씨는 개인택시를 통해 제 2의 삶을 살고자 했다. 항상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만큼 박 씨는 개인택시 기사로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다. 목적지를 말하는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어서 저의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제 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잘 못 듣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지인들에게는 환자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손님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언쟁과 다툼이 잦아지면서 심각성을 실감하게 됐다. 그동안 자주 찾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 이치규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잃어버린 청력, ‘인공와우 수술’로 되찾다

이치규 교수는 여러 진료를 통해 ‘인공와우 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소리를 듣는 것과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환자가 전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상태, 여러 여건 상 인공와우 수술이 최선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라고 이 교수는 회상했다.

인공와우 수술은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소리를 전달하는 의료기기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병원을 찾기 전 박 씨는 청각 문제로 인한 손님과의 다툼 등 여러 어려움으로 개인택시마저 그만둔 상태였다. 또 아무런 취미조차 없이 사람들과 만남을 꺼리며 우울한 삶을 살아왔다.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과 주변인들과도 여러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한 나날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찾은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이치규 교수의 인공와우 수술은 박 씨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었다.

청각으로 되찾은 화목한 가정 그리고 직장

인공와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지만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됐다.

“수술 후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하루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듣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 둘 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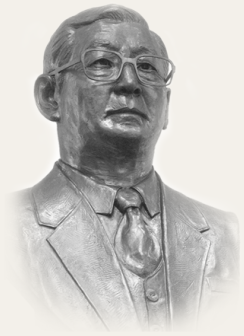
수술 후에도 좌절감에 빠졌던 박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각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잘 들리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활기 있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더 많이 대화하고 친구들, 이웃과도 이제는 아무런 불편 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보내던 박 씨는 자신감을 되찾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도 성공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출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 교수는 “되찾은 청각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박 씨는 “교수님의 정확한 판단과 완벽한 수술을 통해 이처럼 활기찬 새 삶을 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항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 일환으로 연재한다.

의과대학 학생에서 환자를 살리는 '내과의사'로 성장

발로 뛰며 체득한 책임감, 서석조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서석조가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 입국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의 학문적인 열망과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폭넓은 학문적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열망은 그를 내과로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 입국하기까지의 정확한 과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방과 함께 일본인 교원 및 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생긴 인력의 공백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46년 경성대 의학부 졸업자 34명 중 13명이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던 중에 해방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들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일본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한 서석조 역시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 입국하였다.

서울대에서의 경험

서석조는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 의국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활을 하였을까? 그가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의국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록 그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1940년대 말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서 수련한 몇몇 의사들의 회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서석조의 경험을 복원할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외국의 구조는 일제시기와 같이 엄격한 도제식 교육도 아니었고, 미국식



1978년 신축 이전의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의 인턴, 레지던트 제도도 아닌 과도기적 형태를 띠었다. 일제시기의 의과대학은 분과 안에 하나 이상의 강좌가 있고 강좌마다 교수와 강사, 조수, 부수로 구성된 위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각 강좌의 구성원들은 독일식 의학교육 체계에서 차용한 네벤(Neben)과 하우프트(Haupt)라는 관계로 묶여 있었다. 처음 교실에 입국하면 네벤이 되어, 선배 교실원인 하우프트에게 1년 동안 일대일로 지도를 받으며 내과 전반에 관한 임상 수련을 쌓고 이후 하우프트가 되어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련 제도는 해방과 함께 폐지되었다. 미군정청은 강좌마다 교수, 부교수, 강사, 조수 등을 배치하는 전체적인 조직 체계는 유지하였으나, 네벤과 하우프트 같은 도제식 제도는 없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질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의국원들의 활동의 초점은 연구보다는 진료에 맞추어졌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중에는 1만여 명의 젊은 군의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급히 훈련되어 반강제적으로 파견된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최악의 군의관들”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불성실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청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의료 인력을 보전 사업에 활용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소속된 의국원들은 미군정청이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중 하나였다.

서석조와 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수련의들은 물질적,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며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 의국원들의 진료 활동은 대학병원 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들은 일반 병원에 파견되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의국원들은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의 교수였던 김동익이 서울 관수동에 개업한 '김동익 내과'라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이러한 파견근무는 대부분의 의국원들이 봉급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 수단이자, 동시에 임상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였다. 훗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교수가 된 한 의사는 1946년 무급조교로 일하면서 부친 소유의 성냥공장에 주 1회 촉탁으로 나가 진료를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회고들은 1946년 무렵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에 몸담았던 서석조의 활동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의국원들은 물밑듯이 지속되는 진료 업무를 통해 최소한의 임상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일은 때때로 지나치게 고된 것이었고, 정상적인 학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석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명의 의과대학 학생에서 환자를 살리는 내과의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발로 뛰며 체득한 책임감 위에서, 서석조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김진국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성실맨 명의’ 김진국,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다

소통과 성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친절한 신장내과 명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대표하는 김진국 교수는 2001년 부천병원 개원부터 함께하며 진료 현장을 지켜온 핵심 인물이다. 동료이자 아내인 이유경 교수와 함께 언제나 성실하고 유쾌한 태도로 환자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온 그는, 오랜 시간 한결같은 자세로 환자 곁을 지켜왔다. 그의 의료 인생을 돌아보면, 김 교수의 이름이 왜 환자들 사이에서 ‘명의’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방송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으로 일하던 김진국 교수의 부모님은 바쁜 생업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부모님의 높은 학구열과 정성 어린 양육은 김 교수를 오늘날의 다재다능한 의사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성실함 덕분에 자연스레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부지런했다.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성실함 덕분에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성실맨’이라 불렸죠.”

김 교수는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재능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아역 배우로 활동했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전자제품 조립과 수리에 관심을 가지며 ‘만물박사’로 통했다. 이후에는 기기 개조까지 해내는 실력을 보이며 친구들 사이에서 ‘김가이버(김 + 맥가이버)’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금도 집안의 가전제품 정도는 직접 고칠 만큼 손재주가 뛰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진정한 실용형 인재였다.

몸이 약했던 어린시절, 환자로서 의사를 꿈꾸다

이런 다재다능한 소년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건강’문제였다. 5세 이전까지 여러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고 자주 병원에 입원하곤 했다. “어리고 아픈 환자의 눈에 비친 의료진들의 모습은 항상 신비스럽고 존경스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사를 꿈꾸게 됐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저의 희망이자 열망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기 의과대학

입학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후기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이민하려고 했던 부모님을 설득해 이민을 포기하고 힘들게 시험을 치렀지만 전기 의과대학에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운이 따랐는지 후기에 순천향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이 인연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의대 입학은 하늘의 뜻,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다

어린 시절 성실맨으로 통하던 김 교수는 의대 시절 역시 변함없었다. 오히려 어린 시절보다 더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붙었다. “저는 의대 입학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의대 동기들은 ‘정리맨’이라는 별명을 지어 줍니다.” 시험준비를 하기 좋게 잘 정리된 노트를 언제든지 복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친구들에게 제공했다. 이런 그에게 학교 내 복사실 사장님은 새학기 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이 노트들은 후배들에게도 수업용 정리 노트로 대물림해 내려갔다. 이처럼 의대 공부에 진심이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했다. 어린 시절의 다재다능함이 의대생 시절까지 이어진 것이다. “방학 때는 과 내 여행가이드 역할을 하며 일일이 스케줄을 짜서 동기 친구들과 여행을 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잡지 창간 후 편집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농촌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농촌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본과 3학년 때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국립의료원 간호학과와 힘을 합쳐 주말 진료 동아리를

만든 후 의사가 되신 선배들을 모셔와 금호동 달동네에서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 “아내인 이유경 교수는 졸업반인 의학과 4학년에 함께 부과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여기서 사랑을 쌓아 결국 인턴 말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의사의 열정, 환자의 믿음 보며 신장내과 선택

늘 훌륭한 의사가 꿈이었던 김 교수의 눈에 가장 열정적인 의사들은 내과 교수, 그리고 그중에서도 단연 신장내과 교수들이었다. 환자들의 믿음과 신뢰 역시 대단했다. 신장내과 의국의 분위기 역시 최고였다. 결국, 4년차 과정을 신장내과로 선택해 병원들을 돌며 환자들을 만났다.

“천안병원에서 6개월을 돌면서 신장실을 맡았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을 가까이서 접해보고 응급실로 오시는 농약 중독 환자분들을 보면서 신장내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많은 중증환자들을 대하면서 늘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는 게 의사의 책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악화되는 경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론 보호자분들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을 탓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소를 보



일 때는 정말 의사로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김 교수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의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한 환자분은 유언으로 자녀를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응급환자를 살린 적도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환자 발생과 의료진을 찾는 방송이 나오더군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말기신부전증 환자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12시간 가까이 옆에서 환자를 돌봐드렸습니다. 무사히 도착해 119에 인계해 환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칫 회항을 통해 많은 연료비와 승객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항공사 직원들은 김 교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환자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의사’

김 교수는 헬스조선이 기획해 전국 33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가장 설명 잘하는 의사’ 152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만큼 환자에게 친절하고 진심인 의사로 통한다. 이런 김 교수에게 많은 환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주례를 부탁하거나 환자 자식의 주례를 부탁하기도 한다. 요즘과 달리 주례가 필요했던 2020년까지 교직원들에게도 많은 주례 부탁을 받고 들어주었다.

“저를 따라 병원을 옮기며 두 차례 이식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한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더군요. 당시 49세였던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고사했지만 결국 2년 뒤에 주례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엄마와 손잡고 병원에 따라옵니다.” 말기신부전증으로 생사를 오가던 한 환자는 기적적으로 뇌사자 이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이후 환자와 부인이 찾아와 간곡히 딸의 주례를 부탁했고 김 교수는 기꺼이 주례를 해주었다. 환자의 딸은 올해 쌍둥이 엄마가 되었다.

늘 소통하고 가족처럼 생각해라

김 교수의 별명은 너무도 많다. ‘카카오톡 의사’로도 불린다. 자신의 중증환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질병에 대해 소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취미인 여행 사진과 스케줄

등도 교환하며 질병 외적인 것까지 환자와 소통한다. “환자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때에 늘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속에서 자연스레 신뢰는 쌓이게 됩니다.” 김 교수는 뽀빠시절부터 문자, 전화, SNS, 심지어는 편지로 환자와 소통하고 있다. 작게 잡아도 연간 500회 이상 환자와 소통한다.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차트에 집안 경조사나 여행 등을 기록해 두고 환자를 챙기고 있다. 이런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과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하고 돌볼 것인지 고심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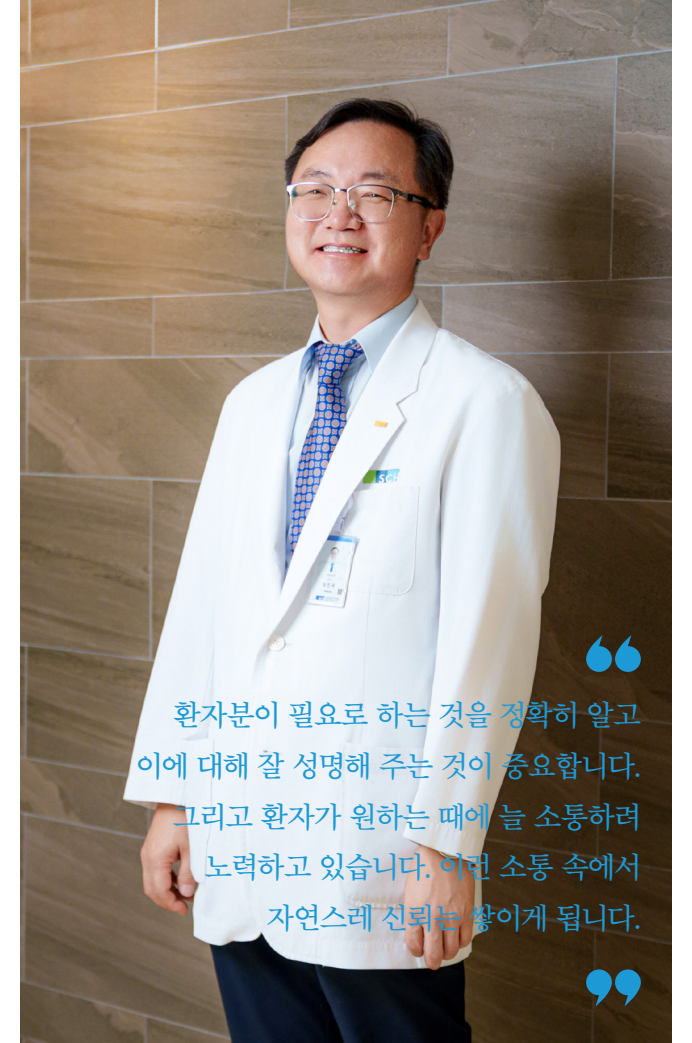
의사로서 걸어온 것처럼 전국을 ‘걷다’

김 교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걷기’다. 걷기는 신장내과 환자들에게는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체지방 감소와 동맥경화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입버릇처럼 걷기의 중요성을 말해왔다.

“환자들에게 걷기에 좋은 길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홍보실장으로서 사보에 걷기 칼럼을 연재하게 됐고 병마와 싸우고 있던 아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부부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김 교수의 걷기는 ‘걷기 칼럼니스트’라는 애칭과 함께 인생 최고의 취미가 됐다. 걸으며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취미는 덤으로 생겼다. 김 교수는 아내 이유경 교수와 함께 걸어온 길의 추억과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걷기 좋은 길 70코스를 소개하는 여행에세이집 ‘행복한 걷기예찬’을 2023년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전국을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 사진을 병원 1층 힐링갤러리를 통해 환자들과 공유하고 재미난 걷기 이야기는 신장학회 KSN NEWS에 연재하고 있다.

여전한 ‘성실맨’, 의학연구에도 집중

그 다재다능한 만큼이나 하는 일도 많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분야에 관한 연구다. 아내 이유경 교수를 비



“환자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때에 늘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속에서 자연스레 신뢰는 쌓이게 됩니다.”

롯한 여러 교수들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관리 보고 시스템’, ‘지역병원 협력 시스템’ 등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투석환자에게 중요한 동정맥류 관리를 위한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류측정기기를 국내에 최초 도입했으며 차기 대한투석혈관협회장으로 이 분야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환자만족도를 얻을 수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일부 의학 분야에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환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과 인간만의 사랑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사만이 진정한 의사입니다. 또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독서, 봉사과 함께 행복한 여가생활로 알찬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SCF



중부권 최고 암 치료 허브로 도약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초정밀‘트루빔·헬시온’도입 두 달 만에 2천례 달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암 치료의 세 가지 축인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전담하는 진료과다. 이 과는 ‘협력’과 ‘정밀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최고의 치료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새병원 개원을 계기로, 중부권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치료 시설을 갖추며 그 전문성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글_ 전진용 사진_ 이병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새병원 개원을 통해 한단계 더 발전된 편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실현하고 있다. 더욱 넓고 쾌적해진 시설과 최첨단 방사선치료 시스템과 장비를 통해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개소 이래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중부권의 거점 치료센터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의학 물리학자, 치료방사선사, 방사선치료 전문사 등 고도로 훈련된 방사선치료 전문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IMRT), 체부정위적 방사선치료(SBRT), 방사선 수술(SRS) 등 최신 치료 기법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암세포를 잡는 진정한 ‘팀 의학’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초정밀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트루빔’ ‘헬시온’ 도입

지난 5월 7일 새병원 개원과 함께 초정밀 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2종을 추가 도입했다. 도입한 치료기는 미국 배리안(Varian)사의 ‘트루빔(Truebeam)’과 ‘헬시온(Halcyon)’이다. 트루빔은 현존하는 X선 선형가속기 중 최고 사양을 갖췄다. 방사선 조사 범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정확하고 부작용이 적은 암 치료기로 유명하다. 또 움직이는 장기를 추적하는 영상-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종양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병원이 도입한 트루빔에는 최신 영상-추적 장치(이그잭트랙_ExacTrac)도 함께 장착되어 방사선 뇌수술 분야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함께 도입한 헬시온은 치료 속도가 빠른 환자 맞춤형 암 치

료기다. 고해상도 기능으로 종양과 주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치료 정확도는 크게 높였다. 기존보다 치료 속도가 최대 4배까지 빨라 환자가 치료받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소음이 적고 내부 공간은 넓어 환자에게 더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헬시온에는 특히 아이덴티파이(IDENTIFY) 시스템과 같은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장비도 함께 설치돼 기존과 다르게 환자의 몸에 별도의 마킹(표식)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어, 여성암(유방암, 부인암 등) 치료기로 운영되고 있다.

새병원 개원과 최신 암 치료기 도입으로 레벨 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새로 도입한 방사선 암치료기 ‘트루빔(Truebeam)’과 ‘헬시온(Halcyon)’의 치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새병원 개원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두 치료기는 6월 12일 기준 2천례를 달성함으로써 지역 최고 수준의 암 치료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존하는 X선 선형가속기 중 최고 사양을 갖춘 트루빔은 방사선 조사 범위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부작용이 적은 암 치료기로 유명하다. 트루빔은 폐암 155건(19%)이 가장 높았고, ▲두경부암 148건(18%) ▲직장암 130건(16%) ▲간암 110건(13%) ▲기타 212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종양 치료도 75건(9%)을 기록해 방사선 뇌수술 분야에도 활발하게 활용됐다. 환자맞춤형 암 치료기로 불리는 헬시온은 종양과 주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치료 정확도는 크게 높인다. 특히 환자의 몸에 별도의 마킹(표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돼 부인암 치료에 적극 활용됐다. 헬시온 치료는 유방암 589건(4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립선암 333건(28%) ▲자궁암 85건(7%) ▲기타 193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은석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새병원 개원 두 달여 만에 높은 치료 건 수를 기록하고, 지역 암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치료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좋은 치료결과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MINI INTERVIEW

“최상의 시설, 최상의 기기, 최상의 친절”

— 김은석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방사선암치료센터장)

방사선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은석 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천안병원과 함께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가 2000년도에 개설됨과 함께 방사선치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새병원 개원과 함께 무엇보다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과 치료기기 역시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인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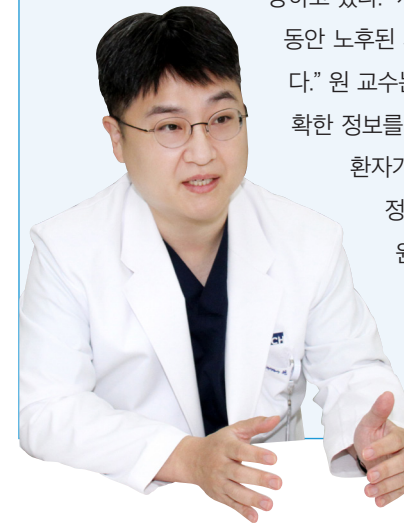
치료 건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새병원과 최신 방사선치료기 도입을 통해 치료 건수 역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과 기기도 중요하지만 김 교수가 항상 더 강조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친절과 팀원 간의 화목이다. “아무리 시설과 기기가 좋아도 환자에게 친절한 의료진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진의 친절함은 팀원간의 화목한 관계 유지를 통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원들은 병원 내 가장 친절한 의료진, 가장 화목한 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팀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노력해 준다면 중부권 최고의 방사선종양학과가 될 것”이라며 “인원과 기기가 늘어난 만큼 팀원간의 화합을 더욱 도모해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심시키는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

— 원용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폐암, 식도암, 흉선암, 림프종, 뇌종양 등이 전문분야인 원용균 교수는 2022년부터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병원 개원을 통해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사로서도 매우 기쁩니다. 특히 그동안 노후된 시설 등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불만이 해소되면서 의료진들도 마음 편히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원 교수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원간 협력하고 있다. “때론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으로 환자가 치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과 치료기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정확한 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 교수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위해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들은 매우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암의 경우 본격적인 치료 시점까지 걸리는 과정과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편안한 병원, 환자와 공감하는 의료진”

— 조인영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과장)



두경부암, 부인암, 직장항문암 등이 전문분야인 조인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새병원 개원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직접 이런 만족감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매우 기쁩니다.” 트루빔, 헬시온 등 새로운 첨단 기기의 도입에 대해서도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최첨단 기기를 통해 모든 케이스의 다양한 암을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새로 도입한 헬시온 기기를 통해 총남권 처음으로 여성암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감할 수 있는 여성암 치료에 특화될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을 갖추어서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 여성 치료사를 통해 환자들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팀원간의 관계를 통해 더 큰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뿐 아니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료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학과 인류에 접목시키는 ‘임상 파트너’

— 민철기(좌)·권우철(우) 의학물리학 박사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방사선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의학 물리학자다. 민철기, 김우철 의학 물리학 박사는 방사선치료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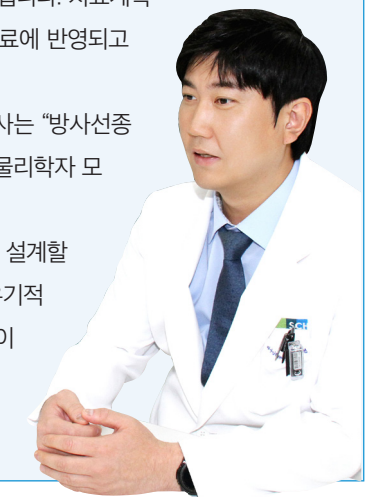
민철기 박사는 “의학 물리학자는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과 인류애를 접목시키는 ‘임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치료는 정밀함과 안전성이 생명인 분야입니다. 치료계획



수립, 선량 계산, 장비 교정, 품질 보증 등 모든 과정에서 물리학적 원리가 환자 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우철 박사 역시 방사선종양학과와 의학 물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방사선종양학과는 진정한 ‘팀의학’을 실현하는 곳”이라며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학 물리학자 모두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협력과 정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치료계획을 설계할 때 의사와 논의하고 방사선사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철기, 김우철 박사는 “환자들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일수 있지만 언제나 환자를 살리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에 피어난 백합 향기, 30년의 기부 봉사

순천향대 구미병원 '백합회' ... 40명 간호조무사들의 나눔 공동체

병원 내에서 가장 힘든 직종 중 하나로 꼽히는 간호조무사. 의사와 간호사의 가교 역할은 물론, 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세심하고 다양한 업무를 도맡는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 묵묵히 사랑과 정성을 실천해온 간호조무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백합회'다. 이름처럼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백합꽃 같은 순수한 마음과 향기를 전하며, 병원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이들은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따뜻한 얼굴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정지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설립 초기, 병원 곳곳에서는 다양한 직종별 봉사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나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유독 간호조무사들만은 별도의 봉사 모임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몇몇 간호조무사들이 뜻을 모아 만든 것이 바로 '백합회'다.

신숙화 회장은 “선배님들이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백합의 꽃말을 모임의 정신으로 삼아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시작된 백합회는 어느덧 30년 넘게 이어지며, 병원 내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백합회에는 총 40명의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임을 갖는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백합회의 진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김량운 부회장은 “백합회는 지역사회와 환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



조무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백합처럼 조용하지만 향기롭게, 이들의 따뜻한 손길은 오늘도 병원과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저금통 모금으로 ‘햇살아이지원센터’ 아동 지원

백합회는 구미병원의 변정숙 사회사업실 파트장과의 인연을 통해 처음 ‘햇살아이지원센터’와 연을 맺게 됐다. 이 인연은 벌써 10년이 됐다. 꾸준한 저금통 모금 활동을 통해 햇살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 온 사랑은 많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많은 아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미나’라고 신 회장은 회상했다. “미나는 태어날 때 체 2kg이 되지 않는 작은 미숙아였습니다. 이제 3세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아직 기저귀를 해야 하고 발음도 명확하지 못하고 말조차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움을 통해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보람된 일이죠.” 미나는 지원을 통한 언어치료로 이제는 스스로 말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혼자 말할 때는 또렷한 발음을 하기도 한다. 어두웠던 아이는 점차 여러모로 밝아졌고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환자·의료진·지역사회 주인과 나누는 따뜻한 정

백합회는 현재 ‘슬기로운 봉사활동 -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제빵 나눔 봉사를 진행해 병동 환자들과 병원 내 의료진에게도 사랑이 담긴 빵을 전달하고 있다. 또 20년째



성주 평화 계곡에 설립된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청소 봉사, 이불 빨래 봉사 등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의 모임인 만큼 더 세심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비록 몸은 고되지만, 봉사를 통해 이들의 미소를 보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힐링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백합회는 사랑의 온도 나눔 활동, 구미적십자나눔터 봉사활동, 사단법인 햇살마루를 통한 의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슴으로 봉사하고 믿음과 신뢰 주는 간호조무사

지난 5월 제빵봉사 활동 중 만난 한 봉사자를 통해 봉사시간을 기록하고 2년 동안 50시간을 채우면 봉사카드를 발급해주는 1365 자원봉사 사이트를 알게 됐다. 이런 다양한 방법의 봉사 정보를 주위에 알려 많은 이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동참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신 회장은 “진정한 봉사와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며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뿐 아니라 여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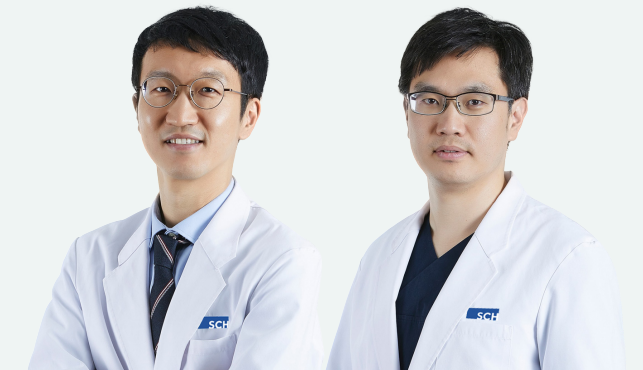
또 김 부회장은 “백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슴으로 봉사하고 환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이며 ‘순천향인’으로서 봉사에 임하는 백합회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빛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SCH
ISSUE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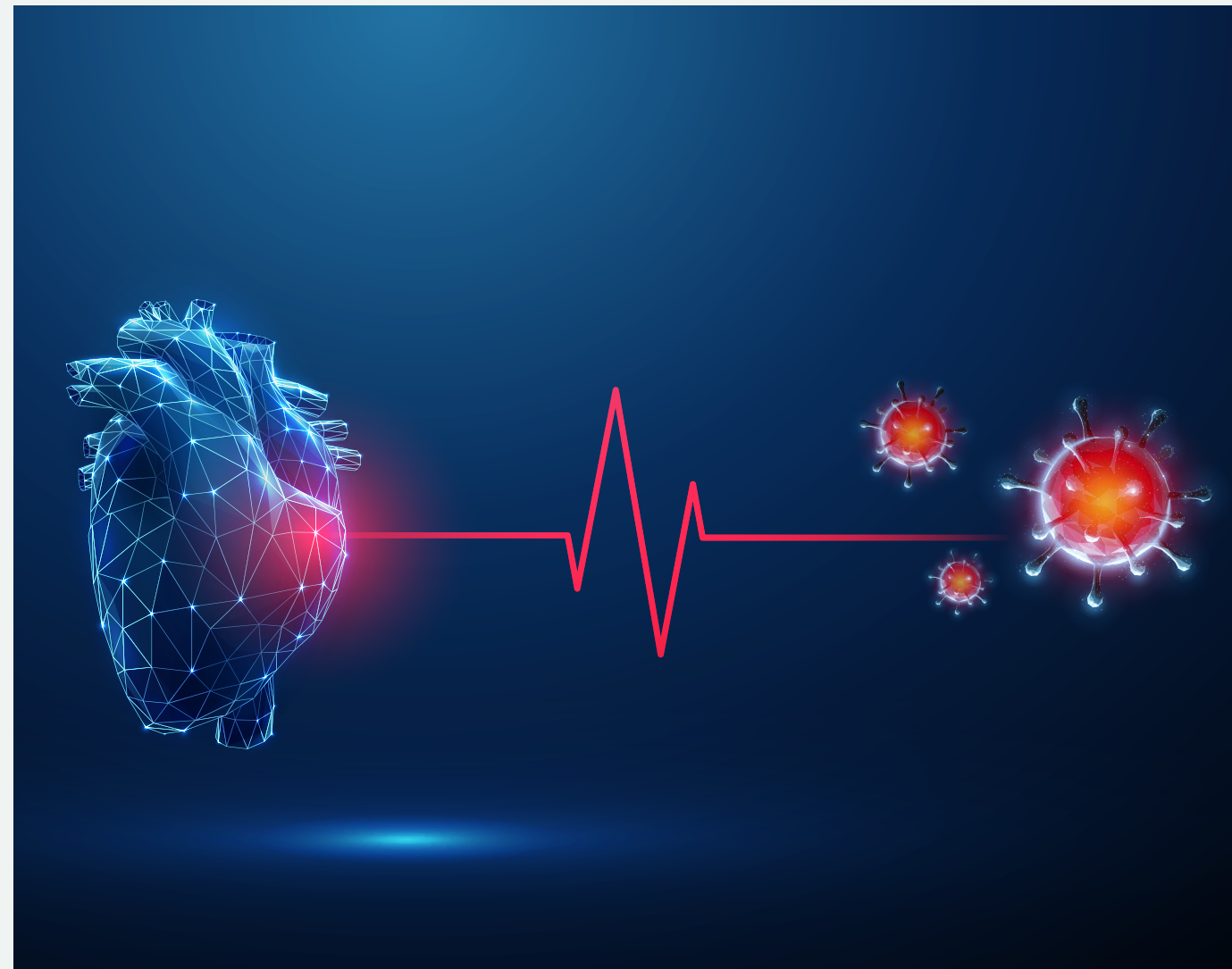


급성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발생 위험 1.5배 높다

권성순·윤석윤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팀 연구 논문 발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권성순 심장내과 교수, 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팀



급성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는 급성심근경색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혈액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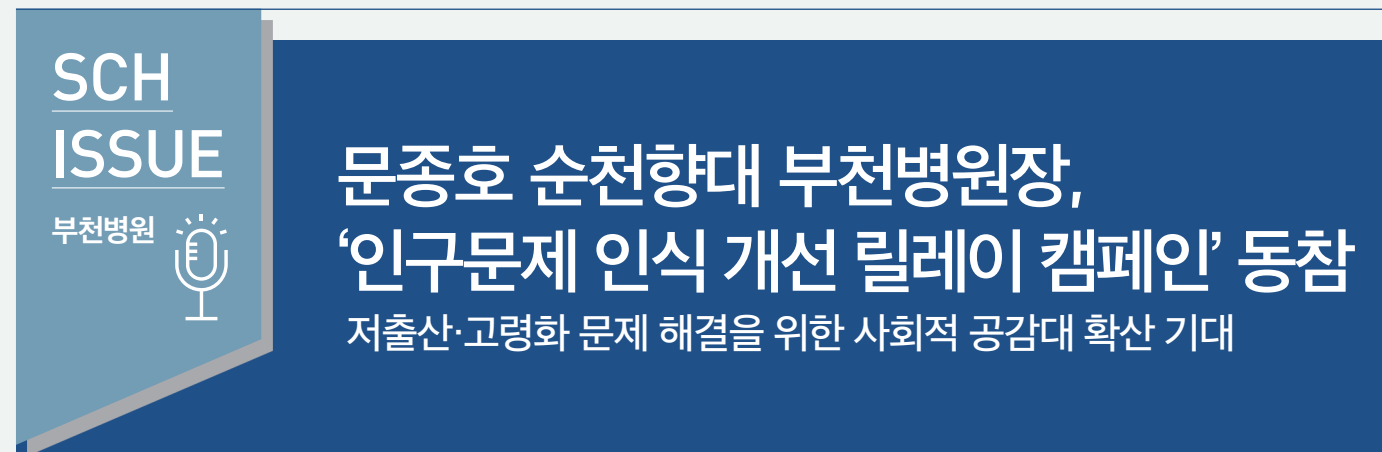
권성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팀은 최근 미국심장학회저널(JACC: CardioOncology)에 발표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Risk of Hematologic Malignancies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 담았다.

권성순·윤석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21년 말까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103,686명과 연령/성별을 맞춘 103,686명의 대조군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경험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혈액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았으며(위험비 1.49배) 다양한 혼란 변수들을 보정한 민감도 분석 및 표준화 발생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권성순 교수는 “급성심근경색과 혈액암은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두 질병 간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와 같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장기 추적할 때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윤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위험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액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문의 교신저자인 권성순 교수와 제1 저자인 윤석윤 교수는 생물학연구센터(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도 선정됐다. BRIC은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피인용 지수 10 이상 또는 분야 상위 3% 이내의 세계적 학술지에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연구자를 매년 ‘한빛사’로 선정하고 있다. SCH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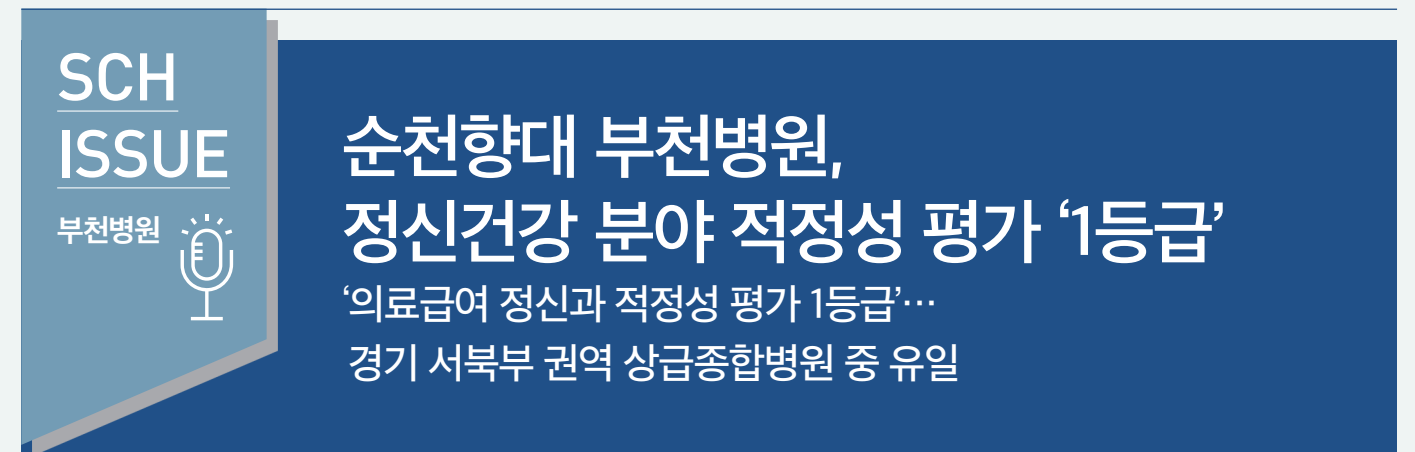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최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국민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참여 기관은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캠페인 참여 사실을 알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간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조용익 부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최보현 부천원미경찰서장과 김현중 유한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문종호 병원장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 동참할 책무가 있다. 앞으로 부천시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 이후, 전문 의료진과 첨단 장비,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경인 지역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신생아 전담 전문의와 소아 각 분야 협진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즉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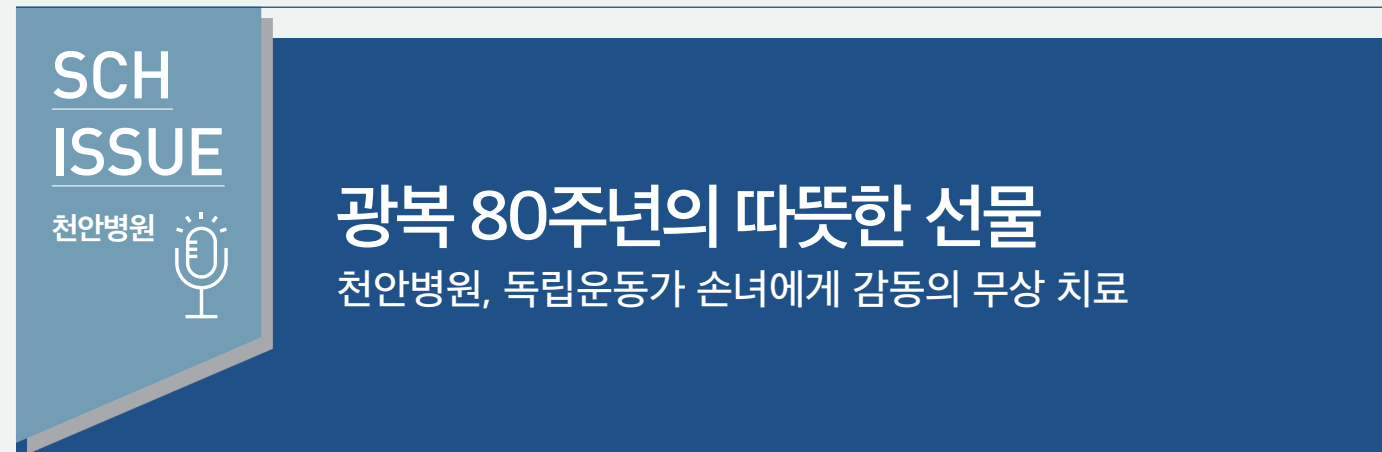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정신건강 분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와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정액 수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정신건강 분야 진료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을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국 3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단 12곳만 1등급을 받았으며, 경기 서북부 권역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유일하다. 또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3회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이 평가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질을 평가하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진료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문종호 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온 병원의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H



최 류드밀라씨 담당간호사가 감사의 손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 류드밀라씨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최 류드밀라와 김수아 교수(왼쪽 세 번째), 윤석만 교수(오른쪽 두 번째) 등 천안병원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뇌졸중 후 재활이 필요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무상 치료를 제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변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천안병원은 영화 '놈놈놈'의 모티브가 된 15만원 탈취 사건의 주역인 독립운동가 최봉설의 손녀, 최 류드밀라(71세, 여)씨의 입원 및 재활 치료를 지원했다.

의료 사각지대 고려인 후손, 천안병원에서 삶의 희망 되찾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최 씨는 올해 2월 뇌졸중이 발병했다. 신체 오른쪽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팔다리 저림, 감각 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었으나,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권유로 올해 5월 입국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은 최 씨를 돕기 위해 천안병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병원은 국가지정 충남 유일의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치료 절차에 들어갔다.

주치의는 충남권역 심뇌혈관센터장인 윤석만 교수(신경외과)와 재활치료센터장인 김수아 교수(재활의학과). 6월 9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시작으로 당일 입원해 6월 27일까지 걷기연습, 근력 강화훈련, 물리치료 및 근육 긴장도 조절훈련 등 강도 높은 재활 치료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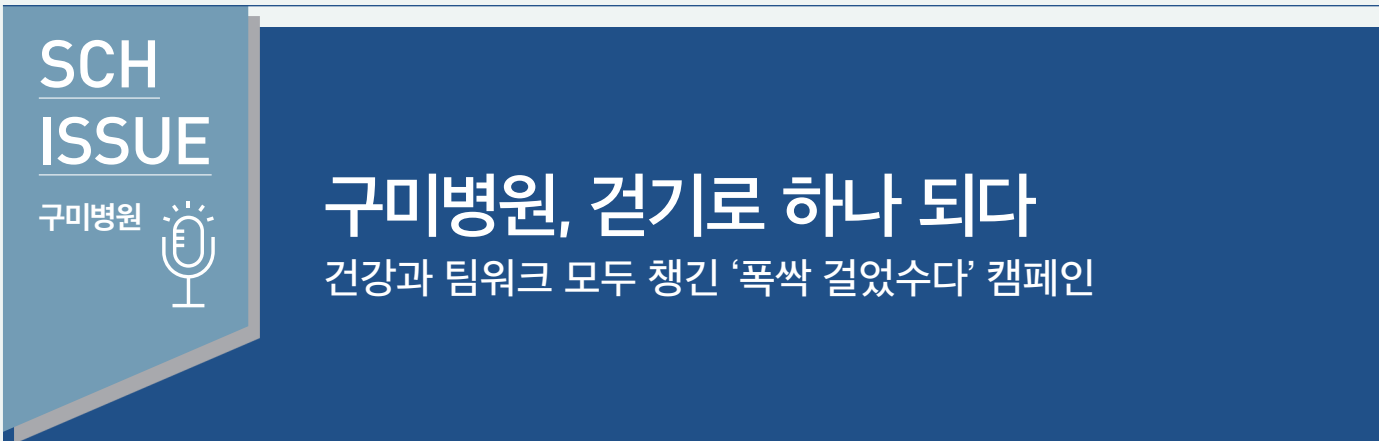
처음 진료에서 보행기를 통해 걷던 최 씨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 근육에 힘이 생기고, 우측 손과 발을 스스로 들고, 보행기 없이도 화장실에 혼자 다녀올 정도로 회복됐다.

재활의학과 김수아 교수는 "입원 기간 훈련에 잘 따라줘 완벽하진 않아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면서, "병원에서 받은 훈련을 잘 기억해 일상에서 연습하고 실천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의 헌신, 의료로 기억할것” ... “손주에게 밥상 차릴 날 기다려”

최 류드밀라씨는 “더 많이 회복돼 딸과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이다”는 희망을 전하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 힘들었을 텐데 늘 친절하게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 준 의료진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의료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환자 치료를 도울 수 있어 영광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땀과 희생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폭삭 걸었수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직원



‘폭삭 걸었수다’ 캠페인 수상자 단체사진

구미병원(병원장 민경대)은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4주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폭삭 걸었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교직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안전보건관리팀 주체로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부서 및 파트별 대표 5명이 한 팀을 이뤄, 총 20개 팀 100명이 함께했으며, 4주간 매일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걸음 수는 개인 별로 인증한 뒤 팀원들의 걸음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팀원 간 응원과 협력이 더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캠페인이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소견자가 포함된 팀에 해당 인원 1인당 1만 보의 추가 걸음 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유소견자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29%가 유소견자로 구성되는 실질적인 참여 성과로 이어졌다.

‘460만 보의 팀워크’ 구미병원, 걷기 캠페인 성공적으로 마무리

총 4주간 진행된 걷기 캠페인의 시상은 6월 월례조회에서 이뤄졌다. 가장 높은 걸음 수를 기록한 진단검사의학팀이 총 4,604,148보로 1위를 차지했고, 원무팀이 3,856,695보로 2위, 재무회계팀 & 연구행정팀이 3,288,321보로 3위를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 속에서 걷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했고,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팀워크와 유대감도 한층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한 참가자는 “캠페인을 계기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걷기가 일상이 되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졌고, 업무 소통과 협력이 훨씬 원활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한 운동 습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활기찬 팀워크를 다졌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SCH](#)



지긋지긋한 가려움 '습진' 뿌리 뽑기

보습과 냉습포로 예방과 관리가 핵심



피부에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을 동반하는 흔한 피부질환이자 피부 증상인 습진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고, 땀도 많이 흘려 각종 피부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피부에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을 동반하는 흔한 피부질환이자 피부 증상인 습진은 워낙 흔하고 피부에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다 보니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 습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습진은 통상 피부염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홍반, 비늘을 동반하는 반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피부질환을 통칭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다양한 '습진성 피부질환'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부 양상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알레르기 물질이나 각종 자극원 등 외적 요인(접촉물질, 음식물, 공기 중의 항원 등)에 의한 유발과 악화가 많다. 내인성 습진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만성습진은 오래된 아토피피부염이나 노인들 건성 습진이 대표적

습진의 대표 질환은 아토피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피부염, 한포진, 주부습진, 화폐상 습진, 건성 습진 등이 있다. 그리고 시기와 경과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한다. 급성습진은 수포와 진물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고, 2차적인 세균이나 진균 감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만성습진은 오래된 아토피피부염이나 노인들의 건성 습진이 대표적이다. 표피가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많이 보일 수 있다. 호발하는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성 습진이나 지루성피부염 같은 습진은 겨울과 같이 건조한 시기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습진은 여름철에 땀이 나거나 습하면 나빠질 수 있다.

가려움증, 냉습포 후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 사용

습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의 급만성 염증반응이다. 수포, 진물에서부터 딱지나 인설, 건조증과 태선화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감염성 질환이 아니어서 전염은 되지 않는다. 초기병변으로 보이는 수포(소수포)는 보통 터뜨릴 만한 크기도 아니고, 터뜨려서 이익될 것이 없다. 차가운 생리식염수나 진정 작용이 있는 마간 용액 등으로 냉습포를 한 후 국소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냉습포 후에는 국소치료제인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차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피부건조증 예방해야

만성습진은 일반적으로 피부건조증이 악화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가려움증 치료는 병변에 대한 치료, 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해 없애는 방법이 있다. 예방법은 습진이 잘 생긴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에서 흔하게 보이는 원인이나 악화 인자를 파악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주부습진의 경우 알레르기항원 철폐검사가 도움이 된다. 건성습진이나 화폐상 습진은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배유인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악성 복수 환자, 대부분 무균 상태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했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했다.

복수 내 T세포 및 NK세포 감소 확인... '면역 억제 환경' 존재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oteobacteria)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복막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바실라이(Bacilli) 등 유익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미생물군이 종양의 전이 및 복수의 면역 환경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장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 분석에서는 4기 환자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1기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방광 미생물 다양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과 방광이 각각 독립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양 부하 및 전신 염증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복수액 내 면역세포 분석에서는 T세포와 NK세포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어, 복수 내 면역 환경이 면역 억제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면역 억제 환경은 종양의 면역 회피를 돕고, 복막 전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정 미생물군과 복막 전이 간의 연관성 규명...

맞춤 치료 가능성 제시

윤진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악성 복수와 복막 전이 환자에서 장 및 방광 미생물군집을 함께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며, 복수가 단순한 종양 부산물이 아니라 미생물과 면역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종양 미세환경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 내 미생물군과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은 향후 새로운 진단 마커 발굴과 면역 기반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특정 미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보조 치료 전략, 장내 유익균을 활용한 면역 조절 치료법 개발, 복막 전이나 질병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미생물 진단 마커 발굴 등을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종단 연구와 메타유전체학, 대사체학 등 고차원의 오믹스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면역 상호작용을 정밀 규명하고, 진행성 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 전략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s(5-year IF 4.9, Q1) 최신호에 게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연구결과](#)



윤진아 순천향대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진화, '표식' 없는 정밀 치료

표면유도기술(SGRT) 본격 도입...
치료 정확도 ↑ 환자의 불편 ↓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 SGRT(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



초기 유방암에서는 과거의 전절제술을 대신하여 유방보존술(Breast conserving surgery)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만큼 많은 유방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유방암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매우 드물어, 대부분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후에, 치료 범위와 치료 횟수를 정하여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방사선 모의 치료라고 불리는 CT 촬영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변화

최근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변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먼저 방사선 치료의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액와부라고 불리는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포함하여 치료하던 것을 점차 배제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의 치료 위치를 맞추기 위해 몸에 잉크 등으로 표시하던 표시(마킹)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 영어로 SGRT(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가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다. 2024년 1월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현재 도입이 확장되고 있다.

몸에 표식이 필요했던 이유

방사선 치료는 한번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4주에서 6주가량 매일 치료를 받게 되는데, 모두 최대한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 몸에 표식하게 된다. 환자의 몸 위치를 맞추기 위한 레이저 표적이 있고, 그 표적과 몸이 잘 맞도록 잉크로 몸에 표시하는 작업을 했었다. 다음날 치료를 할 때 이 선과 몸을 맞춰서 최대한 최초 치료 시와 동일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해당 부위에 문신, 타투를 하기도 했다. 보통 이러한 잉크 표시를 하게 되면, 지워질 가능성 때문에, 탕 목욕이나 때를 미는 행위, 사우나 등을 치료 기간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땀이 나면 그려놓은 라인이 번지거나 옷에 묻는 등 불편감이 존재했다.

신의료기술-표식이 없이 치료 가능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몸, 표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매일 환자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환자가 누워있는 치료 대를 이동시킨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에 표면유도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 치료기와 연동을 시킨다고 보면 된다. 이때 방사선 치료기에 달린 CT를 포함해 여러 최신 장비들의 도움을 받는다.

유방암 환자에게 특히 유리해...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흉부에 위치한 종양을 치료할 때는 이

선을 꼭 몸 위에다 직접 그려야 한다. 유방암 환자들은 피부와 가까운 유방 부위에 높은 방사선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유방 주위에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위에 로션도 바르고 씻어주고 해야 하는데 피부염 부위가 선을 표시한 부위와 겹칠 경우,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잘 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용적으로도 몸통 한복판에 잉크 표시를 한 것 때문에 대중 목욕 시설 등을 가기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치료 중 필요한 관리법

다른 암종에 비해서 피부 가까이에 병변이 위치하는 특성상, 치료 후반부에는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부위의 피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피부 관리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잘 듣고 열심히 따라하면 좋다. 또한, 림프부종 또한 방사선 치료 기간에 악화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수술 후 교육받은 림프부종 예방 마사지, 운동 등을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도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루지말고, 꾸준한 치료 당부

보통 유방암 환자는 수술을 받고 필요한 경우 수술 전, 후에 항암치료도 받고 난 다음에야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그렇다 보니 길어진 치료 기간 자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부분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너무 미루면 치료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꼭 안내받은 일자에 따라 치료 일정을 정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을 당부한다. 



원용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현미경적 혈뇨,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신장·요로계 질환 알리는 초기 경고...
적극적 관리와 추적 필요



현미경적 혈뇨는 현미경 소변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3개 이상의 적혈구가 발견되는 것



소변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발견되면 많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진료실로 찾아온다. 현미경적 혈뇨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관찰되는 상태로,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원인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접근이 중요하다.

현미경적 혈뇨의 정의와 중요성

현미경적 혈뇨는 현미경 소변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3개 이상의 적혈구가 발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 동반된 증상은 없으나, 때로는 사구체신염과 같은 신장질환이나 방광암과 같은 요로계 악성질환을 시사하는 첫 단서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적 평가가 필수적이다.

현미경적 혈뇨의 주요 원인

현미경적 혈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구체는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장 이외의 비뇨기계에도 원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환이 있다.

- 사구체성 : IgA 신병증, 얇은 기저막병, 사구체신염 등
- 비사구체성 : 요로감염, 결석, 방광암, 전립선비대증 등

현미경적 혈뇨의 평가

현미경적 혈뇨가 발견되면 우선 재검사를 통해 현미경적 혈뇨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검사에서도 현미경적 혈뇨가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 혈액검사 :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혈색소, 혈소판, 알부민 등
- 소변검사 : 백혈구, 이상형태적혈구, 적혈구 원주의 유무 등
- 영상검사 : 신장 초음파를 통해 구조적 이상 유무의 확인

현미경적 혈뇨에서 요로암 악성종양의 위험

2020 AUA/SUFU 진료지침에 따라 중등도/고위험군 인자인 40세 이상의 남성, 50세 이상의 여성, 10갑년 이상의 흡연력, 현미경 소변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11-25개 이상의 적혈구와 추가적인 요로암의 위험 인자인 하부요로의 자극적인 증상,

골반부 방사선 치료 과거력, cyclophosphamide/ifosfamide 항암제 치료력, 요로암 가족력 또는 린치증후군, 벤젠 화학 물질 또는 방향족 아민에 대한 직업적 노출력, 장기간 요로에 이물질을 거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광 내시경, CT 등으로 악성종양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의 접근법

요로암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저위험군에서는 반복적인 소변검사로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 중등도~고위험군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항목으로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현미경적 혈뇨가 발견된 환자에서 단백뇨가 동반되거나 현미경 소변검사에서 이상형태적혈구나 세포 원주 (cellular cast) 가 관찰되는 경우, 고혈압 또는 콩팥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는 사구체질환 또는 신장 실질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우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다.

현미경적 혈뇨는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신장 질환과 요로계 악성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구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장내과 교수

콘스탈레이션 비전 시스템

순천향대 구미병원,
유리체 망막 수술을 위한 수술 장비

특징

미국 FDA
최초 승인 획득

빠른 절제속도로
수술시간 단축

미세 절개로
빠른 회복 및 수술 후
불편감 감소

안구 안압 조절을
통해 안구 내 안정성을
일정하게 유지

정밀한(안전한) 수술

- 실시간 안압 조절을 통해 수술 중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 수정체 제거 기능, 안구내 레이저 치료 등 백내장-망막 수술 모두 가능

빠른 수술

- 최대 10,000cpm/(분) 의 속도로 빠르고 정밀한 절제 가능
- 수술 시간이 짧아 환자의 부담 감소
- 정밀한 팁 설계로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줄이고 수술시간 단축

회복이 빠른 수술

- 0.5mm 미세 절개로 수술 후 불편감 감소
- 수술 후 부작용 최소화, 빠른 시력 회복 및 일상 복귀가 빠름



문의 : 순천향대 구미병원 안과 외래 054-468-9250

*안과 진료 후 예약 가능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 협의회장에 김현 동은학원 법인재무팀장 취임

순천향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운영 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김현 법 인재무팀장이 전국대학병원 재무 부서장 협의회장에 취임했다. 김현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 간 다 양한 정보 교류와 친선 도모, 현안 토론 활성화, 소통을 통해 협의회 발전은 물론 각 기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 의회는 ‘의료기관의 회계 처리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1991년에 설립했 다. 전국 48개 대학병원과 의료법인, 상급 종합병원의 재무부서장이 회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김해시와 협력…의료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 해소 김해 지역 캄보디아 근로자 건강검진 봉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료원장 서유성)은 5월 24일(토) 김해시 보건소에서 김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의료봉 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과의 협 력 프로그램으로, 의료 접근성 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 원은 건강 상담, 기본 검진 외에도 심장내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 문 의 등 의료진 총 29명을 파견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경희의료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에서 이동 검진 차량 2대와 초음파, 심전도 등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지원 되어 내실 있는 진료 및 검진을 제공했다. 곳은 날씨에도 80여명의 캄보디아 근로 자들이 현장을 찾았으며 350여 건의 건강전문상담 및 검진이 이뤄졌다.



교육부 핵심연구지원센터사업 선정… 6년간 25억 지원

순천향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핵심 연구지원센터사업’(기초과 학연구역량 강화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5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이 달부터 2031년 2월까지 6 에너지공학과 정순기 교수 센터는 정순기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전기 차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를 대상으 로 성능 평가와 열화 메커니즘 해석을 위한 고도화된 전문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초과학 기반의 분석 역량과 실험 인 프라의 공공성을 높이고, 에너지·디스플레이 소재 분 야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해 산학협력 중심의 연구 생 태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충동문화와 글로벌대학30 추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순천향대학교(총 장 송병국)는 6월 12일 순천향대학 교 부속 천안병원 6층 1강당에서 송 병국 총장과 신응진 충동문화장을 비롯, 주요 보직자 와 동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30 추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AI의료융합 특성 화 대학’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학의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 동력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 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AI의료융합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전 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의료와 AI, 빅데이 터 기술을 융합해 실현하는 차세대 산업모델과 함께, 순천향대가 아시아 AI의료융합 분야 TOP1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들이 공유되며 동문 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AI의료융합 혁신 플랫폼 구축 본격화

순천향대학교는 6월 18일 대학본관 중회의실에서 한 국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와 함께 AI의료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 AI의료융합산업 분야의 공동연구·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 성장지원 ▲의료 융합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산업 수요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글로벌대학30 연계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담 교수, ‘글로벌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연구과제 선정

류담 순천향대학교 서울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주관하는 ‘2025년도 글로벌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선정돼 3년간 5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연구과제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과 부정맥을 포함 한 심장질환과의 임상적 상관관계 및 생물학적 기전 연구’이다. 류담 교수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MASLD)이 단순한 간질환을 넘어 심장 염증, 전기생 리 이상, 심근 리모델링 등 심혈관계 합병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간-심장 축 (liver-heart axis)’의 병태생리학적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 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숙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팀, 대한초음파의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홍성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팀(배성환, 황지영, 이은지)이 5월 8일과 9 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 린 제56차 대한초음파 의학회 학술대회(KSUM)에서 우수 연구 학술상을 수 상했다. 홍성숙 교수팀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18년간의 전립선암의 사이버나이프 치 료를 위한 금침삽입술을 안전하게 시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도에 학술지 Ultrasography에 ‘Transperineal versus transrectal prostate fiducial insertion in radiation of prostate cancer : a systemantic review and meta-analysis’ 논문을 발표 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재현 교수, 임상 및 개발사업 연구 지원 선정

김재현 비노의학과 교수 가 최근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지원과제와 장애인· 노인 자립재활을 위한 보 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지원 과제는 ‘자기공명영상 및 바이오마커 기 반 환자 맞춤형 전립선암 진단 프로토콜 개발’이다. 서 울아산병원 등과 공동으로 2027년 말까지 총 연구비 13억7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노인 자립생활 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은 ‘집노-패드 기술 기반의 다양한 배뇨곤란 대상자를 위한 셀프케 어 가능한 배뇨관리 보조기기 개발’이며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8년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지원 연구비는 16억원이다.



송우진 교수, 대한성형외과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오메가-3 기반 약물전달체 개발로 유방재건 환자의 구형구축 예방 가능성 제시-

송우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5월 15~16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 원에서 열린 제14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 (New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송우진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Development of a fish oil-nanoemulsion gel as a drug-delivery system to prevent capsular contracture. Scientific Reports 14, 29385 (2024)’에서 오메가-3의 항염증·항 섬유화 특성을 활용한 약물 전달체 를 개발하고, 전임상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비만환자 관리 및 공동연구·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업무협약 순천향대서울병원-카카오헬스케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의 디 지털 전환에 앞장선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과 ㈜카카오헬스케 어(대표이사 황희)는 6월 11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향설교육관 회의실에서 비만환 자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및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는 카카오펀스케 어의 AI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파스타와 함께 비만 관리에 나서며 비만 환자 를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등에 다양한 상호 협력 과 연구도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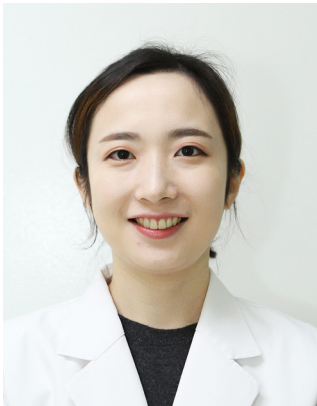


최수인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최수인 교수가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제18회 의요기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최 교수는 의요기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정책 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이번 표창은 의요기기 안전 정보 모니터링센터 실무진들과 함께 이룬 공동의 성과로, 의요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눈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제훈 신경외과 교수 연구팀,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균주 개발

정제훈 교수팀이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균주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과 뼈 건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해,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이 유발된 동물 모델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구 투여된 복합 균주가 뼈 밀도와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마이크로-CT 분석, 조직 염색, 혈액 바이오마커 분석 등에서도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양의 단일 균주를 투여했을 때보다 복합 균주를 투여했을 때 더 뛰어난 효과와 확인돼,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균주 간의 시너지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활동’에 의약품 600인분 기부

부천병원이 ‘2025년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활동’에 씨달리며 일반의약품 600인분을 한국환경공단에 기부했다. 한국환경공단은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간다 부수쿠마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도색 ▲디지털 교실·화장실·주방·세면대 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학용품 등 물품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 기후 위기 등 환경 교육 ▲위생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현지 학생·교사·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K-푸드 및 문화 페스티벌을 열어 대한민국 문화를 소개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5년 제21회 사랑의 도서바자회’ 성료

부천병원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제21회 사랑의 도서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교보문고 인천점과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교보문고 팝업마켓’을 열었다. 성인·아동 도서 등을 정가보다 10% 할인 판매하고, 핫트랙스 디자인 문구·리빙 상품 등을 함께 판매했다. ‘사랑의 도서 바자회’는 매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외 저소득층 환자 의료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판매 총액의 10%인 2,219,830원이 기부금으로 적립됐다.



나눔실천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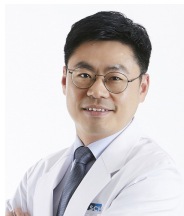
천안병원이 ‘2025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한 공로로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충청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포상식은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병원은 2012년부터 직장인 나눔캠페인 ‘착한일터’ 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교직원 급여 공제 방식으로 마련된 기부금은 지금까지 총 4억6천만원이다. 매월 34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하는 기부는 지금까지 401명의 취약계층 환자에게 4억 2천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또 2019년에는 정신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지원 사업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93년 결성된 간호부 봉사모임 ‘사랑화’는 매년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건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충남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천안병원에 표창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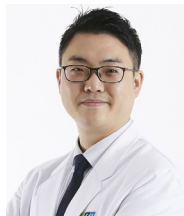
위장관외과 송금중 교수, 비만대사외과학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

송금중 교수(위장관외과)가 ‘2025 아시아태평양 비만대사외과학회(APMBSS) 및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KSMBS)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발표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위소매절제술 후 위의 형태와 체중감량 및 역류성 식도염 간의 관계에 대한 3D CT 기반 연구(Morphology of the Stomach after Sleeve Gastrectomy Using 3D CT Volumetry and Its Relationship to Weight Loss and Gastroesophageal Reflux)’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결과 수술 후 위의 형태가 체중감량률(%TWL)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위의 잔여 부피가 클수록 위식도역류질환 발생 위험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발표해 위소매절제술 후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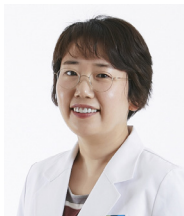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사업’ 선정

박정완 교수(감염내과)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중개 연구를 수행하는 유망한 신진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기초와 임상 분야 간 연계를 통해 창의적인 융합연구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임상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연결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교수는 사업에서 ‘이중가닥 RNA 억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치료 후분물질 발굴 연구 및 유효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2027년 12월까지 5.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중가닥 RNA(double-stranded RNA) 억제제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차세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핵의학과 이상미 교수, 충남도의사회 ‘충의 학술상’ 수상

이상미 교수(핵의학과)가 ‘제3회 충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충의(忠醫) 학술상’을 수상했다. 충의 학술상은 충남 지역에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난 의사에게 주는 상이다. 이 교수는 ‘악성 종양과 염증 관련 미세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영상 분석(Imaging Study about whole body inflammation and peritumoral microenvironment)’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논문은 신체 내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전신의 염증 상태에 영향을 주고, 암의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FDG PET/CT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또 확인된 전신염증은 골수 및 암 주변의 지방조직에도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연역화 학기법을 통해 제시했다. 이 교수는 관련 분야에서 SCI급 국제저널에 50여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발표하고, 4개의 전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신경과 최유진 교수, 미국 신경과 학회 학술대회 초청 발표

구미병원 신경과 최유진 교수 연구팀은 2025 AAN(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AAN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경과 학술대회로, 최유진 교수는 “신경 및 근육장애” 부문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신경과 의료진 및 연구진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유진 교수 연구팀은 ‘노령 인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감소증에서 자가포식(Autophagy) 및 미토파지(Mitophagy)의 활성 변화가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근육세포에 특이적인 자가포식/미토파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근육 염증 기전을 조절하고, 근육세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고령자의 근감소증 및 근이영양증에서 근육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연구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위상을 입증했다. 최유진 교수는 “세계 최고의 신경과 학술대회에서 연자 발표를 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연구자들과 함께 교류하여 다양한 신경과 질환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선정

구미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골든아워 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구미병원은 신경외과 2명, 신경과 3명, 응급의학과 6명 등 총 11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며, 경북 중서부권 및 의료취약지역의 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경외과 여동규 교수, 신경과 신대섭 교수가 주축이 되어 뇌졸중 질환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응급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지역 내 필수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예정이다. 민경대 병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중증 치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필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병원 교직원, 아동보호캠페인 성료



구미병원은 5월 12일(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병원 외래관 1층 로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 다

양한 구성원이 함께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총 150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4대 유형(신체·정서·성·방임)에 대한 퀴즈 이벤트 ▲참여형 포토존 ‘인생네트워크’ 촬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 다짐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내원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경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아동보호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구미병원, ‘무료가훈써주기’ 행사 개최



구미병원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외래관 2층에서 ‘무료가훈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한국서예연구원 송산(松山) 양태상 원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서기운집(瑞氣雲集, 좋은 기운이 구름처럼 모인다), ‘화목건강’ 등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가훈 문구들이 제공돼 많은 내원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무료가훈써주기에 참여한 한 내원객은 “가훈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짧은 문구지만 마음에 깊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미병원은 2010년부터 매년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오케스트라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구미병원은 “짧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원객들에게 의미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